

# 최근 우리나라의 主要死因

## 순환기계질환 전체 30.2%

## 사망원인 제1위

이와같은 결과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등을 위시한 급성감염성질환이 주요死因을 차지하는 양상과는 매우 판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원인 및 질병양태의 변화는 변천하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적절한 질병관리와 건강증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전염성의 만성·퇴행성질환, 소위 "成人病"이 질병문제와 사망원인의 주종을 이루는 현대사회에서는, 각별히 최근의 주요死因의 변천과 추이를 잘 파악, 숙지하여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보건·의료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다.

### '93년도 死因構造

'93년 총 신고사망자 230,772명 중 사망분류가 가능한 217,154건의 사망구조를 보면 뇌졸중 등의 순환기계질환이 30.2%, 각종 癌으로 인한 사망이 21.4%, 각종 事故死로 인한 사망이 14.8%를 차지하여 同 3大 死因群에 의한 사망이 전사망의 66.4%

(자연신고 등 제외)를 총인구 대비(사망률)로 보면,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23.8명이며, 남자는 592.3명, 여자는 454.4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훨씬 높는데, 사망원인별로는 순환기계질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死因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



유 동 준  
(경희의대 교수)

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 I. 남녀별 사망률의 차이가 크게 나는 死因

- 慢性肝疾患 및 硬變症 (남자: 46.3, 여자: 11.1)
- 結核 (남자: 14.3, 여자: 5.7)

(남자: 7.4, 여자: 1.7)

### II. 남녀별 사망률이 비슷한 死因

- 糖尿病 (남자: 17.2, 여자: 16.0)
- 白血病 (남자: 3.7, 여자: 3.0)
- 心臟病 (남자: 43.0, 여자: 43.9)
- 大腸癌 (남자: 5.5, 여자: 5.2)
- 高血壓 (남자: 25.2, 여자: 29.7)

### 死因 순위

우리나라 사망자의 死因 순위를 구성비(死因분류가 능 건수에 대한 死因별 사망 건수 비율로 보면) 각종암으로 인한 사망이 2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뇌혈관질환(16.0%), 각종 불의의 사고(12.3%), 심장병(8.3%), 만성간질환자 및 경변증(5.5%) 순이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암, 불의의 사고, 뇌혈관질환, 만성간질환, 심장병 순이고, 여자는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 사고, 고혈압성질환 순이다.<표 1. 참조>

을 알 수 있다.

70대 이후부터는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다.<표 2. 참조>

### I. 연령별 5대 死因순위

- ◎10代: 불의의 사고, 암, 자살, 심장병, 선천이상
- ◎20代: 불의의 사고, 자살,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 ◎30代: 불의의 사고, 암, 만성간질환(간경화), 심장병, 자살
- ◎40代: 암, 불의의 사고, 만성간질환(간경화), 뇌혈관질환, 심장병
- ◎50代: 암, 뇌혈관질환, 불의의 사고, 만성간질환(간경화), 심장병
- ◎60代: 암, 뇌혈관질환, 심장병, 불의의 사고, 고혈압성질환
- ◎70代이상: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고혈압성질환, 천식

### 주요死因의 變化推移

### I.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死因

- ▲폐암: 계속 증가하며 그 속도가 매우 빨라 10년 사이에 3배이상 증가하였다. ('83년 5.7→'93년 17.7)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83년의 死因構造(순환기계질환 27.9%, 각종 암 12.3%, 각종 事故사 9.5%)와 비교해 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암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 男女別 및 死因別 死亡率

'93년 발생신고 사망자수

- 肝 癌 (남자: 35.0, 여자: 11.4)
- 肺 癌 (남자: 25.8, 여자: 9.3)
- 食 道 癌 (남자: 5.3, 여자: 0.8)
- 交通 事故 (남자: 48.5, 여자: 17.9)
- 自 殺 (남자: 13.4, 여자: 6.3)
- 墜 落 (남자: 6.4, 여자: 1.9)
- 溺 死

### 연령별 死因원인

연령별로 보면; 0세를 제외한 1세부터 30대까지의 가장 높은 死因이 「불의의 사고」로 나타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0대, 50대, 60대 사망순위 1위는 각종암으로서 40대 이후부터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높다는 것

▲당뇨병: '83년 4.3에서 '93년 16.6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허혈성심질환: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死因으로 '83년 2.2에서 '93년 13.5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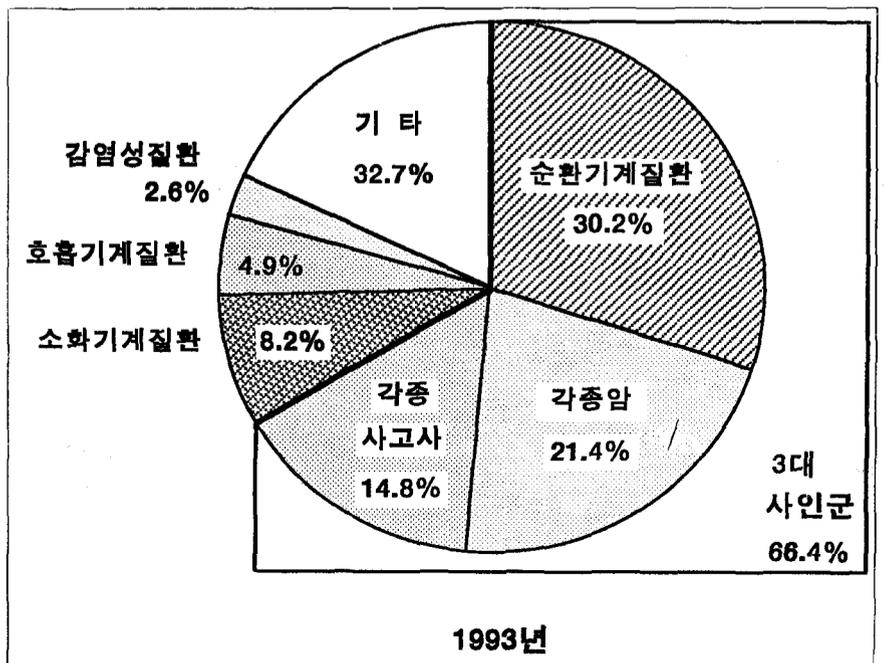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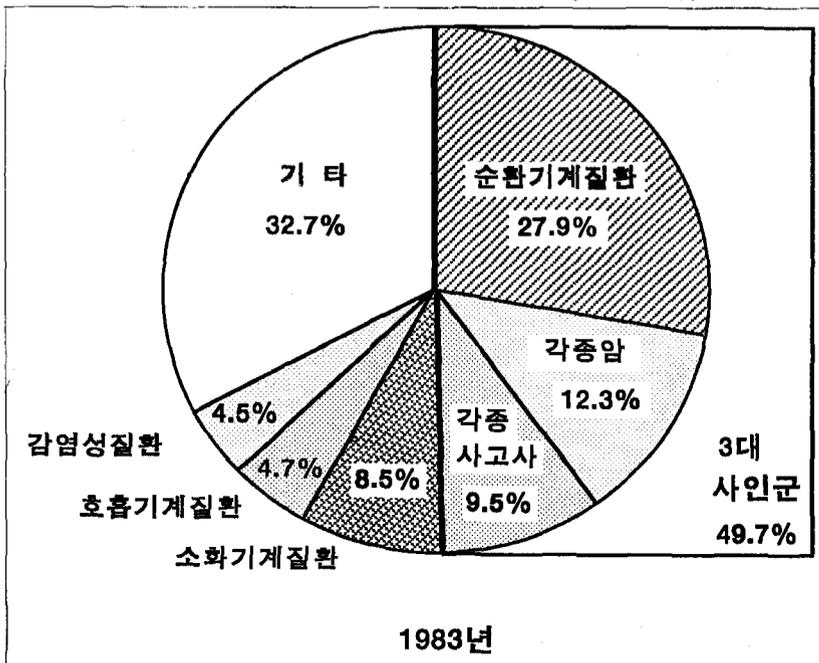
▲대장암: 사망자수는 많지 않으나 10년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83년 1.7→'93년 5.3) 위 死因들은 평균수명이 높은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

### 서 언

지난해 말경 정부(통계청)이 발표한 '93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순환기계질환이 30.2%로 제1위, 각종암이 21.4%로 제2위, 각종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14.8%로 제3위를 차지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 <그림 1> 최근 10년간 死因 構造 比較



# 최근 우리나라의 主要死因

은 死因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 스트레스, 공해, 육류섭취 등의 증가로 장래에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II. 증가하다가 정체 상태인 死因

▲위암 :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약간의 증가세였으나 '85년을 고비로 미미하나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기 건강검진 진단의 확대와 위 내시경 발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암 중에서는 5년 생존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률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간암 : '83년 15.6에서 '90년 24.1로 증가한 후 정체상태인 同 死因은 B형 간염백신접종 확대 및 신생아 예방접종 의무화로 장래에는 사망률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과 관계된 간암 및 간경변은 사망률 수준 자체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교통사고 : '83년 10.9에서 '90년 39.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91년 이후 사망률이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다. 차량의 수가 증가함에도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범국민적인 캠페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나 교통사고 사망률 수준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 III. 감소 추세인 死因

▲결핵 : 후진국형 질환인 同 死因은 '83년 19.2에서 '93년 10.1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며, 사망률은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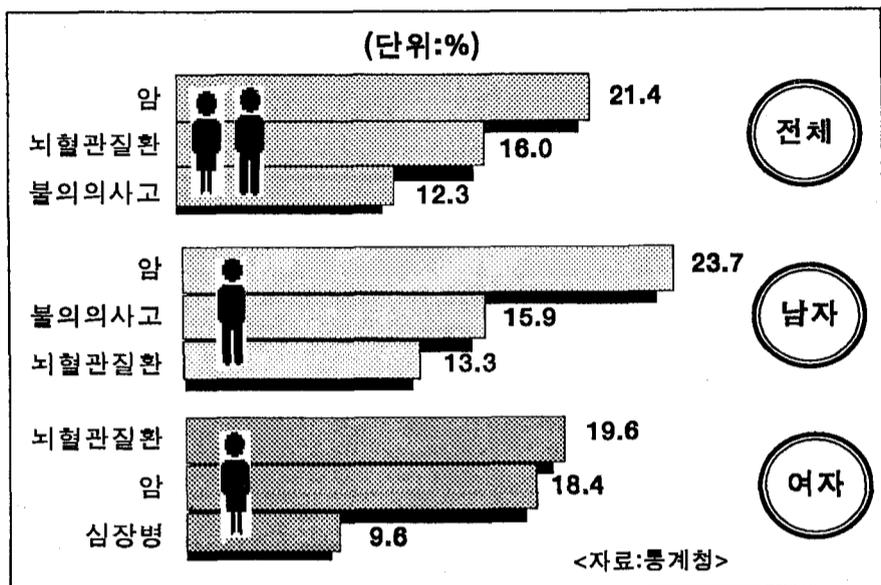
▲간염 : 유아사망과 노인 연령층의 주요 死因이 되는 同 질환은 영아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함과 더불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나('83년 10.8 → '93년 4.8), 인구의 노령화로 장래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혈압성 질환 : 同 死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83년 45.6 → '93년 27.3),

주요死因의 추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간 공포된 정부당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들과 이에 관련된 과거의 주요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의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를 분석검토하고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1993년도 사망원인 통계자료(통계청발표)를 중점적으로 조사고찰하여 다음

다.  
2. 최근의 남녀별 주요死因의 변동을 보면, 남자에서는 암, 불의의 사고, 뇌혈관질환, 만성간장병, 심장병의 순위이고, 여자에서는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 사고, 고혈압성질환의 순위이다.  
3. 연령군별 주요死因은 0세(영아기)에서는 주로 선천성 이상과 감염성질환이고 1세

<그림 2> 남녀별 死因 순위



이는 발생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과거에 비해 고혈압을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으로 死因이 전환되는 현상과 또한 의사들의 死因명 기재방법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 언**  
필자는 최근 우리나라의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980년대에 들어와서 순환기계질환이 현저히 수위권으로 부상하고, 악성신생물은 그간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여, 1992년도에는 순환기계질환, 암 및 사고의 순으로 이들 三大死因이 전체 사망의 66.4%를 차지하고 있

에서 30대까지는 사고가 전체사망의 약 50%를 차지하며, 40대에서 60대까진 암, 순환기계질환, 만성간장병 등의 소위 成人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70대 이상의 연령군에선 뇌혈관질환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4. 주요死因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 위세를 떨치던 전염성질환(결핵 포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비전염성의

<표 1> 1993년 남녀별 死因別 死亡率

사 망 원 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임)		
	계	남 자	여 자
總 사 망	523.8	592.3	454.4
감 염 성 질 환	13.4	17.9	8.8
(결 핵)	10.1	14.3	5.7
악 성 신 생 물	112.2	140.2	83.4
(식도암)	3.1	5.3	0.8
(위 암)	29.8	36.6	22.9
(대장암)	5.3	5.5	5.2
(간 암)	23.4	35.0	11.4
(폐 암)	17.7	25.8	9.3
(백혈병)	3.4	3.7	3.0
당 뇨 병	16.6	17.2	16.0
순 환 기 계 질 환	158.4	151.1	166.8
(고혈압성질환)	27.3	25.2	29.7
(심장병)	43.3	43.0	43.9
(뇌혈관질환)	83.8	79.0	89.2
호 흡 계 질 환	25.6	27.8	23.3
(폐 령)	4.8	5.3	4.2
소 화 기 계 질 환	43.0	61.8	23.5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	29.0	46.3	11.1
손 상 및 중 독	77.6	111.5	42.4
(교통사고)	33.6	48.5	17.9
(불의의 추락)	4.2	6.4	1.9
(불의의 익사)	4.6	7.4	1.7
(자살)	9.9	13.4	6.3
(타살)	1.7	2.2	1.3

<표 2> 연령계급별 5大 死因順位

연 령	(단위: 명, %)				
	1위	2위	3위	4위	5위
전 체	암 46,531(21.4)	뇌혈관질환 34,730(16.0)	불의의 사고 26,810(12.3)	심장병 17,952(8.3)	만성간질환 12,035(5.5)
남 자	암 29,699(23.7)	불의의 사고 19,931(15.9)	뇌혈관질환 16,730(13.3)	만성간질환 9,802(7.8)	심장병 9,104(7.3)
여 자	뇌혈관질환 18,000(19.6)	암 16,832(18.4)	심장병 8,848(9.6)	불의의 사고 6,879(7.5)	고혈압성질환 5,983(6.5)
0	선천이상 710(34.1)	불의의 사고 339(16.3)	주산기질환 275(13.2)	폐렴, 기관지염 104(5.0)	심장병 47(2.3)
1~9	불의의 사고 1,752(51.7)	선천이상 309(9.1)	암 308(9.1)	소아뇌성마비 148(4.4)	폐렴, 기관지염 142(4.2)
10~19	불의의 사고 2,098(49.3)	암 455(10.7)	자살 336(7.9)	심장병 239(5.6)	선천이상 146(3.4)
20~29	불의의 사고 4,504(52.8)	자살 955(11.2)	암 845(9.9)	심장병 450(5.3)	뇌혈관질환 108(1.3)
30~39	불의의 사고 4,944(34.5)	암 2,528(17.6)	만성간질환 1,308(9.1)	심장병 991(6.9)	자살 962(6.7)
40~49	암 4,819(25.3)	불의의 사고 3,932(20.7)	만성간질환 2,657(14.0)	뇌혈관질환 1,652(8.7)	심장병 1,431(7.5)
50~59	암 11,456(33.3)	뇌혈관질환 4,635(13.5)	불의의 사고 3,958(11.5)	만성간질환 3,824(11.1)	심장병 2,330(6.8)
60~69	암 13,060(32.2)	뇌혈관질환 7,894(19.5)	심장병 3,152(7.8)	불의의 사고 2,591(6.4)	고혈압성질환 2,393(5.9)
70	뇌혈관질환 19,574(21.6)	암 13,020(14.4)	심장병 9,232(10.2)	고혈압성질환 6,706(7.4)	천식 3,204(3.5)

註: ( )내의 수치는 死因分類可能 件數를 기초로 計算한 構成比임.

# '93 우리나라 주요死因의 해설

만성퇴행성질환인 소위 "成人病"인 순환기계질환과 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만성간장병은 그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도 그 사망수준은 높은 실정이다. 또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제3의 死因에, 전체사망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5. 수위를 차지하는 순환기계질환에서, 앞으로 뇌혈관질환은 정체하면서 고혈압성질환은 약간 감소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사장애성 당뇨병도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도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